



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김승일 행정부지사가 설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8대 분야 20개 과제 설정
 화재 등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체계 구축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전북도는 1일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대 민생안정 종합대책은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서민 생활 안정적 관리 대책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대책 ▲명절 특별 교통 안전 대책 ▲귀성객 맞이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비상진료 및 보건, 위생, 환경 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 대책이다.

올해는 설 연휴가 다소 짧지만 많

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역AI 발생 예방 및 전주 한옥마을 등 관광지 집중현상으로 염려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취업난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도민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외에도 의료,교통,복지에 도, 시군,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설 연휴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재해 및 가축 감염병 관리 힘쓰며, 특히 화재 예방점검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대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강성봉 도의원 의원직 수행 본격화

임시회 본회의장서 선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다짐



동하는 양심으로 살맛나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강성봉(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와 함께 본격적인 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강 의원은 의원 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으로 직무수행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그간 청년이장으로의 활동 경험과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도내 농업의 발전 방향과 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행

다짐했다.

이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행복한 전북, 위대하고 정의로운 전북, 앞으로 살고 싶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를 만드는 데 작지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완산 선관위 - 전주우체국 '공명선거' 맞손

지방선거 대비 업무협약 체결... 협조체계 구축 정의 실현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일 전주완산구선관위에서 전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편 및 금융서비스 기관인 '전주우체국'과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두 기관은 선거관련 우편물의 정

확한 접수·배달 및 움직이는 신고센터 운영,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개표사무원 지원 등의 업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안재현 관리계장은 "전주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도 정확하면서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명선거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의회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

아동보육 발전 공로 인정 '감사패' 수상

전주시의회 양영환(사진) 복지환경위원장은 1일 전주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및 영유아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전주시 아동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 전주의 미래며 아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아동의 생존, 보호 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아

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재난 예방 만전 국가안전대진단 돌입

전북도, 5일~내달 30일
 54일간 1만2000여개소
 시설물 구조 등 점검

30일까지 54일간 안전관리 대상시설 1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구조 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제도, 관행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한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이다.

도는 대진단 기간 동안 '도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건축물, 건설공사장, 옹벽 및 급경사지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을 집중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최근 대형 재난재해로 주민 불안이 큰 지진, 화재, 건설공사장 사고 등 안전 취약 분야를 진단대상에 포함했으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대비해 경기장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진단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점검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진단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분석과 현장점검(자체점검한 시설물의 15%범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민들이 직접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ople.go.kr)과 스마트폰 앱의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